



[제2018-51호]

		<h1>보도자료</h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18. 7.6(금)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전시		
연락처	seon@kccla.org / info@gyopo.us		담당자	최희선 (323-936-3014)	

작가 아니카 이 & 큐레이터 자밀라 제임스와의 대화

“ 2016 휴고 보스상을 수상한 한인 1.5 세 아니카 이 작가의 작품 및 현대미술, 그리고 문화에 대하여 논하다 ”

- ▶ 행사명 : 작가 아니카 이 & 큐레이터 자밀라 제임스와의 대화 (Anicka Yi & Jamillah James in Conversation)
- ▶ 일시 : 2018.7.16(월) 저녁 7시
- ▶ 장소 : LA한국문화원 아리홀/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 ▶ 주최 : LA한국문화원, GYOPO(교포)
- ▶ 문의 : LA 한국문화원 전시담당 최희선 323-936-3014/ GYOPO(교포) 낸시 리 info@gyopo.us



Jamillah James, photo by Paul Sepuya

Anicka Yi / *Force Majeure*, 2017

Plexiglas, aluminum, agar, bacteria, refrigeration system, LED lights, glass, epoxy resin, powder coated stainless steel, light bulbs, digital clocks, silicone, and silk flowers

Dimensions variable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47 Canal, New York, and The Solomon R. Guggenheim Museum, New York.

Anicka Yi photo courtesy of the artist and 47 Canal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과 GYOPO(교포)는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작가 아니카 이와 LA현대미술연구소의 자밀라 제임스 큐레이터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다중 학문과 연계하여 작업을 하고 있는 아니카 이의 작품에 대한 논의와 현대미술과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GYOPO(교포 www.gyopo.us)는 LA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계 작가와 큐레이터, 문인, 문화 관련 프로듀서, 그리고 전문 예술인들의 모임으로, 영향력있는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현대미술, 문화, 네트워크, 억압과 차별 등 사회정의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는 단체이다.

뉴욕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아니카 이는 합성 생물학, 생물 공학, 소멸 및 바이오 픽션 등 과학 및 기술 등과 예술이 접목되어진 실험적 설치 작업을 하는 개념 미술가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한인 1.5세작가다. 한국인으로는 처음 ‘2016 휴고 보스’ 상을 수상했으며, 뉴욕의 구겐하임뮤지움, 독일의 프리데릭치아눔뮤지움,쿤스탈 바젤현대미술관, 메사츄세츠의 리스트 비주얼 아트센터, 뉴욕의 더 키친, 클리블랜드뮤지움 등 세계적인 뮤지움에서 개인전이 개최되었다. 또한, 2017년 휘트니 비엔날레와 로테르담 국제 영화제에서 그녀가 제작 및 감독한 영화 'The Flavor Genome'을 상영했다. 이작가의 작품은 뉴욕의 구겐하임미술관, 현대미술관, 휘트니미술관, 클리블랜드 미술관, 파리 라파예트 미술관, LA의 라크마 등 수 많은 공공 미술관에 소장되어있다.

자밀라 제임스큐레이터는 LA현대미술 연구소(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Los Angeles)의 큐레이터이며, 파사데나의 아트센터에 강의도 나가고 있다. 제임스큐레이터는 2004년부터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개인적으로 전시회, 공연, 영화 상영 등 공공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며, LA 해머뮤지움에 큐레이터로 재직 당시(2014-2016) 뉴욕 할렘의 스튜디오 미술관, 뉴욕의 퀸즈 박물관 등과 함께 비영리 Art + Practice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전시기획으로는 라파 에스파리자, 아비게일 드빌, 사라 카인, 사이몬 레이, 알렉스 다 오르테, 미셸 오마라, 니데카 아무닐라 크로스비의 개인전을 기획하였으며, 현재는 B. 워츠, 네이랜드 블레이크와 레베카 모리스의 개인전 및 그룹전 ‘The Living End: Painting and Other Technologies 1970-Present (2020)’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다 수의 글을 유명 미술전문지 Artform 등에 게재하였으며, 다이아몬드 스틱글리, 바바라 해머, 니나 샤넬 아브니, 그리고 브레나 영 블러드, 등 아티스트와의 인터뷰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자밀라 제임스큐레이터는 파사데나의 아트센터 대학원에 강의도 나가고 있다.